

## 미 증시, 미-러 우려 불구 소비자물가지수, 금융주 안정으로 상승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 미 증시 동향: 소비자물가지수와 지역은행 안정 속 상승

• 미 증시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둔화가 진행된 가운데 위기설이 유입되던 퍼스트 리퍼블릭 CEO가 예금의 대량 인출은 없었다고 발표하자 SVB 사태로 촉발된 우려가 완화되며 상승 출발 후 폭을 확대. 그러나 오후 들어 러시아 전투기가 미국의 드론을 격추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러 분쟁 우려가 확대되며 상승분을 일부 반납. 더불어 무디스가 은행시스템 전망을 하향 조정해 은행주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부담. 다만, 기술주, 금융주, 반도체 등이 상승 주도하며 상승세는 지속되며 재차 상승 확대(다우 +1.06%, 나스닥 +2.14%, S&P500 +1.68%, 러셀2000 +1.87%)

### 특징 종목: 지역은행, 테슬라, 엔비디아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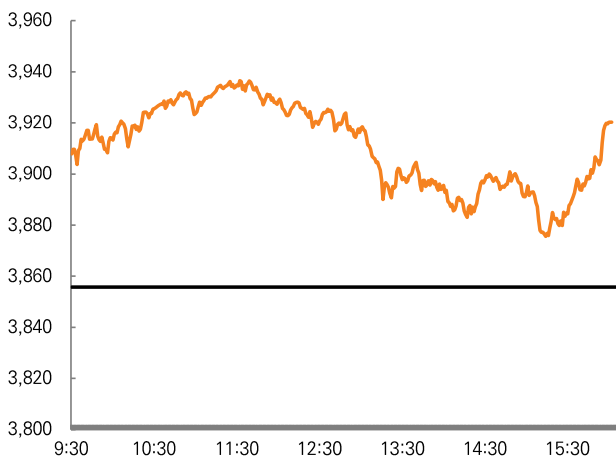
• 위기설이 유입되며 전일 급락했던 퍼스트 리퍼블릭(+26.98%)은 대량 인출은 없었으며 JP모건(+2.57%) 등으로부터 자금을 수혈받아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등. 찰스 슈왑(+9.19%)도 도이치뱅크가 유동성 위험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한 가운데 CEO도 풍부한 유동성 등을 언급하자 강세. 테슬라(+5.03%)는 지난주 중국내 차량 등록수가 3월 첫 주 대비 28% 증가한 1만 7,032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상승. 엔비디아(+4.78%)는 MS(+2.71%)가 점점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 AI 모델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컴퓨팅 성능을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GPU와 함께 한다고 발표하자 상승

### 한국 증시 전망: 전일 하락을 뒤로하고 반등 예상

• MSCI 한국 지수 ETF는 1.32% 하락, MSCI 신흥 지수 ETF는 0.05%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02.00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0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96% 상승. KOSPI는 1% 내외 상승 출발 예상.

• 미 증시가 물가 하락 압력이 지속된 가운데 지역 은행들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며 강세를 보인 점은 전일 한국 증시 하락을 뒤로하고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더불어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지수가 1.8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03% 상승하는 등 한국 증시에 영향을 주는 주요 지수 강세폭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점도 투자 심리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1% 내외 상승 출발 후 중국 실물 경제지표 결과에 주목하며 견조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348.97	-2.56	상해종합	3,245.31	-0.72
KOSDAQ	758.05	-3.91	홍콩항생	19,247.96	-2.27
DOW	32,155.40	+1.06	베트남	1,040.13	-1.20
NASDAQ	11,428.15	+2.14	유로스톡스 50	4,179.47	+2.02
S&P 500	3,920.56	+1.68	영국	7,637.11	+1.17
캐나다	19,694.16	+0.54	독일	15,232.83	+1.83
일본	27,222.04	-2.19	프랑스	7,141.57	+1.86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 ① 소비자물가지수 ② 지역 은행 안정 ③ 미-러 분쟁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전년대비 6.4%를 하회한 6.0%로 발표돼 예상과 부합한 가운데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전년 대비 5.5%를 기록해 지난달 발표된 5.6%를 하회하는 등 물가 안정이 진행. 지난 금요일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토대로 예상된 수치라는 점에서, 그리고 국채 금리는 최근 SVB 사태의 영향으로 약세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물가지수의 영향은 크지 않았음. 특히 파산 우려로 급락했던 퍼스트 리퍼블릭(+26.98%)이 급등하는 등 지역 은행들이 안정을 되찾자 물가지수 안정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는 급등. 물론, 주가지수는 물가 안정과 지역 은행들의 안정 등에 힘입어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안정을 되찾는 모습.

소비자 물가지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주거비가 전년대비 7.9%에서 8.1%로 상승한 가운데 외식비(yoy +8.2%→+8.4%), 전기요금(+11.9%→+12.9%)이 상승한 가운데 항공 운임이 전월 대비 2.1% 하락에서 6.4% 상승으로 전환해 전년 대비로 26.5%를 기록. 그렇지만, 가솔린(yoy 1.5%→-2.0%), 중고차(yoy -11.6%→-13.6%), 의료서비스(yoy +3.0%→+2.1%) 등 대부분의 품목이 지난달 발표에서 둔화되었으며 특히 가스 서비스 품목이 전월 대비 6.7% 상승에서 8.0% 하락으로 전환해 전년 대비로는 26.7%에서 14.3%로 크게 하락한 점이 특징. 결국 물가의 상승은 주거비가 주도한 가운데 항공, 외식 등 외부 활동 관련 품목의 상승폭도 적지 않았음. 다만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품목이 하향 조정되는 등 온화한 날씨로 인한 영향이 완화. 이를 감안, 인플레이션 수준이 여전히 높은 만큼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 변화는 없으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 또한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SVB 사태의 핵심은 위기설이 유입되고 있는 여타 지역은행들로 뱅크런이 파생되는지 여부, 또 예금 인출이 제한될 경우 IT 기업들이 입게 될 피해와 그에 따른 경기 경착륙 우려였음.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한편, 견고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대형주는 양호했으나 중소형 종목 중심으로는 크게 하락. 그렇지만, 정부의 개입으로 예금이 보증되어 우려했던 사태로 확산되지는 않았으며, 여타 지역은행들 중심으로 뱅크런 또한 없었다는 점이 관련 우려를 완화.

특히 전일 한 때 80% 가까이 급락하며 뱅크런 가능성이 부각되었던 퍼스트 리퍼블릭(+26.98%)은 JP모건(+2.57%) 등으로부터 자금을 수혈받은 가운데 CEO가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중이며 대규모 예금 인출은 없었다고 발표. 결국 정부의 대응 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안정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시장은 안정을 찾아가는 양상. 다만, 무디스가 미국의 은행 시스템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점을 감안 여전히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 무디스의 발표처럼 연준의 높은 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어 지역 은행권에 대한 압박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

한편, 장 후반 흑해 상공에서 작전중인 미국의 드론을 러시아 전투기가 격추했다고 미국 유럽 사령부가 성명을 발표하자 미-러 관계 악화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격화 가능성이 부각되며 주식시장이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등 변화를 보인 점도 특징. 백악관은 국제 공역에서 일상적인 작전을 수행 중이던 미국의 항공기가 러시아의 전투기에 의해 요격당해 추락했다고 언급. 미 국무부는 러시아 측과 이 문제를 화요일 오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



## 지역은행주, 테슬라, 엔비디아 상승

위기설이 유입되며 전일 한 때 80%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던 퍼스트 리퍼블릭(+26.98%)은 대량 인출은 없었으며 JP모건(+2.57%) 등으로부터 자금을 수혈받아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급등. 이에 힘입어 키코프(+6.94%), 웨스턴 얼라이언스(+14.36%), 팩웨스트뱅크 (+33.85%) 등이 동반 급등. 찰스 슈왓(+9.19%)도 도이치뱅크가 유동성 위험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한 가운데 CEO도 풍부한 유동성 등을 언급하자 강세. 다만, 무디스가 미국 은행 시스템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발표하자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등 여전히 변동성은 확대.

테슬라(+5.03%)는 지난주 중국내 차량 등록수가 3월 첫 주 대비 28% 증가한 1만 7,032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상승. 비야디의 등록 건수가 둔화되거나 정체된 반면, 테슬라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상승. 반면, 니오(-1.52%), 샤오펑(-4.23%), 리오토(-1.30%) 등 중국 전기차 업종은 부진.

엔비디아(+4.78%)는 MS(+2.71%)가 점점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 AI 모델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컴퓨팅 성능을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GPU와 함께 해야 한다고 발표하자 상승. 한편, MS는 오픈AI가 이날 GPT-4로 알려진 강력한 인공 지능 모델을 출시했다는 소식에 강세. 이에 AMD(+6.63%), 메타(+7.25%), 알파벳(+3.14%), 아마존(+2.65%) 등도 동반 상승했는데 AI 관련 테마 강세 및 소비자 물가지수로 인한 물가 안정 기대도 관련 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0.64	대형 가치주 ETF (IVE)	+1.65
클린테크 ETF (CTEC)	+0.58	중형 가치주 ETF (IWS)	+1.51
소매업체 ETF (XLY)	+1.70	소형 가치주 ETF (IWN)	+1.66
온라인소매 ETF (EBIZ)	+1.78	대형 성장주 ETF (VUG)	+2.18
미국 인프라 ETF (PAVE)	+1.74	중형 성장주 ETF (IWP)	+1.66
핀테크 ETF (FINX)	+3.58	소형 성장주 ETF (IWO)	+2.13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2.14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82
클라우드 ETF (CLOU)	+2.18	신중국 고배당 ETF (SDEM)	-0.74
사이버보안 ETF (BUG)	+2.59	신중국 저변동 ETF (EEMV)	-0.40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1.12	미국 국채 ETF (IEF)	-0.94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0.02	하이일드 ETF (JNK)	+0.78
바이오섹터 ETF (IBB)	+1.26	신중국 채권 ETF (EMBD)	0.00
로봇&AI ETF (BOTZ)	+1.72	물가연동채 ETF (TIP)	-0.55
반도체 ETF (SMH)	+2.99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30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커뮤니케이션	175.84	+2.75	-0.53	-3.30
IT	2,434.58	+2.29	+0.44	-2.71
금융	536.77	+2.12	-7.80	-11.94
경기소비재	1,093.24	+1.71	-1.69	-7.44
유틸리티	334.46	+1.29	+1.13	-2.80
소재	491.94	+1.24	-4.05	-5.52
산업재	839.14	+1.05	-2.62	-3.48
헬스케어	1,470.02	+0.88	-0.55	-4.96
에너지	621.92	+0.88	-4.81	-9.58
부동산	231.76	+0.84	-1.87	-7.94
필수소비재	750.65	+0.80	-0.02	-1.81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전일 하락을 뒤로하고 반등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는 1.32% 하락, MSCI 신흥 지수 ETF는 0.05%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02.00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0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96% 상승. KOSPI는 1% 내외 상승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미 증시가 보합권 혼조 마감했으나, 국채 금리가 급락하는 등 경기 경착륙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 특히 장 후반으로 가며 외국인인 선물물 2만 계약 가까이 순매도한 가운데 현물도 매물을 내놓는 등 수급적인 부담도 이어지며 낙폭을 확대. KOSPI는 2.56%, KOSDAQ은 3.91% 하락 마감.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물가 하락 압력이 지속된 가운데 지역 은행들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며 강세를 보인 점은 전일 한국 증시 하락을 뒤로하고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더불어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지수가 1.8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03% 상승하는 등 한국 증시에 영향을 주는 주요 지수 강세폭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점도 투자 심리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여기에 소비자물가지수가 안정을 보였음에도 미국 국채 금리 특히 단기물이 급등하며 최근 급락을 뒤로하고 상승한 점도 우호적. 물가 안정으로 금리가 하락해야 함에도 최근 하락이 경기 경착륙 이슈에 의한 하락이었던 점을 감안 금리의 상승은 채권시장의 안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우호적.

물론, 장 중 러시아가 미국의 드론을 격추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첫 미-러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점은 부담.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산 우려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 다만, 화요일 오후 주미 러시아 대사과 미국 관리 회담을 앞두고 있고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 등을 앞두고 있어 사태 확대 가능성은 제한.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1% 내외 상승 출발 후 중국 실물 경제지표 결과에 주목하며 건조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둔화

미국 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5% 상승을 하회한 0.4%로 발표돼 예상에 부합. 전년 대비로도 6.4% 상승에서 6.0%로 발표돼 예상과 부합.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달 발표나 예상치인 전월 대비 0.4%를 상회한 0.5%로 발표되었으나 전년 대비로는 지난달 발표된 5.6%를 하회한 5.5%로 발표돼 예상에 부합.

미국 2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는 지난달 발표된 90.3은 물론, 예상치인 89.9를 상회한 90.9로 발표돼 3개월내 최고치를 기록.

”  
”  
상품 및  
FX시장 동향

## 국채 금리, 지역 은행 안정 속 급등

국제유가는 OPEC이 원유시장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고 미국의 물가 안정과 지역 은행들의 우려가 완화되었음에도 매물이 지속되며 하락. 더불어 중국의 워드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중국 소비자들의 외부 활동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소식도 OPEC의 중국 원유 수요 증가 기대를 완화시켜 하락 요인으로 작용. 한편, 유럽 천연가스는 여전히 북유럽 지역의 온화한 날씨와 급증하고 있는 풍력 발전 비중 등으로 천연가스 수요 둔화 가능성이 부각되자 10%대 급락. 다만, 주 후반 유럽 날씨가 다시 추워질 수 있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주목.

달러화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과 부합하였으며 세부항목 대부분 지난달 발표와 달리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약세 요인이거나 이날 국채 금리가 급등해 여타 환율에 대해 보험권 혼조 양상을 보임. 연화는 미국 지역은행들의 안정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둔화되자 달러 대비 약세.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인 가운데 브라질 헤알 등도 약세를 보인 반면, 멕시코 페소는 강세를 보이는 등 신흥국 환율도 혼조 양상.

국채금리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에 부합한 가운데 대부분의 품목이 하향 안정을 보였음에도 상승. 이는 최근 금리 급락이 지역 은행들의 문제로 미국 경착륙 가능성을 부각시킨데 따른 것이었으며 지역 은행들이 안정되자 되돌림이 유입된데 따른 것으로 추정. 결국 오늘 채권 시장은 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보다는 지역 은행들의 움직임에 더 큰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단기물 중심으로 급등.

금은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되자 하락. 구리 및 비철금속은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상품시장 투자심리 위축 속 하락. 곡물은 브라질의 옥수수과 대두 수확기가 시작되자 브라질 산 곡물 수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하락하기도 했으나,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확대되고, 미국과 러시아의 무력 충돌로 인한 우려가 부각되자 상승전환 후 폭을 확대.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 광석은 0.59%, 철근은 0.11% 상승.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1.33	-4.43	-7.85	Dollar Index	103.663	+0.07	-1.85
브렌트유	77.45	-4.02	-6.93	EUR/USD	1.0733	+0.02	+1.74
천연가스	2.57	-1.27	-4.24	USD/JPY	134.20	+0.74	-2.16
금	1,910.90	-0.45	+4.82	GBP/USD	1.2156	-0.22	+2.76
은	22.04	-0.63	+7.85	USD/CHF	0.9140	+0.23	-2.95
알루미늄	2,352.50	+0.81	+0.11	AUD/USD	0.6680	+0.18	+1.46
전기동	8,833.50	-1.09	+0.80	USD/CAD	1.3687	-0.32	-0.49
아연	2,909.50	-1.26	-1.51	USD/RUB	75.7277	+0.41	-0.08
옥수수	620.75	+1.22	-2.09	USD/BRL	5.2571	+0.19	+1.26
밀	696.25	+1.64	-0.32	USD/CNH	6.8836	+0.46	-1.58
대두	1,493.75	+0.22	-1.39	USD/KRW	1,311.10	+0.71	+0.90
커피	175.45	-2.09	-3.89	USD/KRW NDF1M	1,302.00		-1.10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684	+11.03	-28.02	스페인	3.484	+11.70	-23.80
한국	3.375	-5.00	-27.70	포르투갈	3.315	+11.60	-25.40
일본	0.274	-7.40	-23.00	그리스	4.333	+3.00	-16.70
독일	2.420	+16.10	-27.20	이탈리아	4.265	+8.20	-26.2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